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30 ~ 8/5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한글 아함경 (재개정판)	고익진	담아카데미
2	성철 스님의 화두공부 하는 법	성철	해인사출판부	7	서행 극락이 그대의 집선화상에 영물만들	정원규	민족사
3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어	빛은소리매은나라	8	현판기행	김봉규	담애틀스
4	수트라 (여시아독)	법일	김영사	9	계정혜 인간불교의 근원 가르침	성운대사	운주사
5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용	용화	10	사랑이 온대(화해와 치유의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모든 '궁극' 설명하는 '영원의 철학'

영원의 철학

울더스 헤슬리 지음 | 조옥경 옮김 | 오강남 해제
김영사 펴냄 | 1만9천8백원

여러 문화의 장르를 섭렵했을 뿐 아니라 철학자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예언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멋진 신세계)의 작가 울더스 헤슬리(1894~1963)는 인생 후반기에 인간의식의 궁극을 탐구했다. 그 궁극은 모든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것으로, 헤슬리는 그것을 '신성한 실제'로 설명했다. 책은 그 신성한 실재를 인정하는 철학적 개념인 '영원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다.

헤슬리는 모든 존재의 '근본', '궁극'인 '신성한 실제'를 사고와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영적 알'의 영역이라 하며, 여러 종교들의 전통은 개인들이 경험한 '신성한 실제'를 각기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헤슬리는 종교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나 신비적 합일, 해탈 같은 개념은 종교적 수행을 통해 의식의 심연에서 '신성한 실제'를 만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종교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 뿐, 모두 '신성한 실제'의 체험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책의 핵심으로, '영원의 철학'이란 '존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라는 것이다. 헤슬리는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 불교, 힌두교, 도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신비주의 등의 여러 경전을 면

진정한 깨달음 위한 420개 나침반

존재의 본질인 '신성한 실제' 인정한
형이상학 · 심리학 · 윤리학의 철학적 개념

'신성한 실제'는 '직접적 영적 알'의 영역
깨달음 등은 '신성한 실제' 체험하는 것

현자들 가르침 정수 한데 모아

《능가경》 등 다양한 불교 경전 인용

말하게 탐구한 후,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본질적인 공통점을 찾아 종합했다. 책은 스스로 거두고 깨달음으로써 '신성한 실제'를 직접 통찰한 이들이 여러 시대와 장소에 걸쳐 토로한 420여 개 구절들을 소개하고 헤슬리가 해설을 붙인 지혜의 모음집이다.

가톨릭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윌리엄 로의 글을 가장 많이 인용했으며, 다양한 불교 경전도 인용하고 있는데, 《능가경》이 가장 많고, 그밖에 《육조단경》 등 선(禪)의 정수를 보여주는 내용들과 함께 대승과 소승, 교종과 선종의 핵심을 골고루 아우르고 있다. 이처럼 동서양 영적 천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총집결시킨 헤슬리의 방대한 독서결과 사유의 지평, 그리고 해설과 묻어나오는 체험의 깊이는 그의 천재성이 주는 경이감과 함께 의식이 고양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박재원 기자

한국 불교 근현대사서 읽어야 할 것들

불교 근대화의 이상과 현실

김광석 지음 | 선인 펴냄 | 4만7천원

"한국 근현대 불교는 지난 130여 년간(1876~) 격동의 세월을 거쳤다. 격동의 세월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불교는 생존, 발전 도전과 응전, 변화 등 다양한 행적을 노정하였던 것이다."

책은 한국 근현대 불교를 '불교 근대화'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연구한 성과물이다. 불교 근대화는 근대기의 시공간에서 불교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식 및 행보였다. 즉 변화된 세상이 근대 공간에서 불교를 존립, 발전시키려는 일련의 흐름을 말한다.

한국의 근대불교는 한국 불교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근대불교는 근대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불교와 현대불교를 연결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한국 현대불교의 본질, 성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불교사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심화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도 근대불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상, 소재, 성격, 이념 등등에 대한 문제가 연구의 주제로 심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교 근대화를 추진한 불교 인물들의 고뇌, 지향, 구상 등을 전해주는 자료, 문헌 등이 빈약한 실정이다.

불교 근대화에 대한 내용은 그간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로 인해 개괄적 이해는 도출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개념화 작업은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불교 근대화의 개념화와 유관한 '불교의 근대성'에 대해, 이전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했다.

필자는 (불교의) 근대성 검토의 우선점이 불교인들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인식'에서 나온 역사적식이 아닌가 하는 단상을 갖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주체의식, 자율은 기본적으로 수반된다. 이 전제에서 불교의 근대성을 검토하면, 조선 시대의 불교와는 전연 다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었다는 불교인들의 각성, 주체의식이 최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 후에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강한 주체의식 하에 불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다양한 고민, 활동, 대안, 불교 개혁론, 신식학교 설립, 도회지에 포교당 개설, 외국 유학, 교단 재건 등이 뒤따르는 것이다. 요컨대 새로운 시대에 불교가 처하였다는 불교계의 역사적식을 점검하는 것이 불교 근대성 연구의 첫 번째 발점점이라고 본다. 그 연구 후에는 근대시기(개항~8.15 해방) 불교계의 총체적인 움직임(의식, 흐름, 운동 등)의 본질(성격, 특성 등)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불교의 근대성과 한용운의 대중불교》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이번 책에 수록된 연구 성과는 위에서 제시한 구도에서 나온 것이다. 즉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불교계 내부 구성원의 자각을 거쳐 다양한 대안과 방향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불교가 나아갈 노선에 대한 단일적인 흐름(시대정신)이 형성된 것과 그 구도에서 나온 다양한 변화상, 역사상에 대한 연구를 했다. 당시 불교인들은 불교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치열한 고뇌를 하고, 그를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불교 근대화로 나아가는 길은 간단치 않았다. 즉 불교 근대화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간극에는 대립, 저항, 열정, 비판 등이 노정되었던 것이다. 책은 그 간극에 있었던 제반 역사상을 정리한 연구이다. 한편, 불교 근대화의 범주를 기존 연구 경향에서는 진보, 혁신, 개혁의 관점으로만 이해했다. 그러나 필자는 불교 근대화는 보수, 중도, 개량, 진보 등 모든 노선에서 자생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책은 다양한 근대화 노선의 실상, 사례에 대한 연구 성과물이 라 하겠다.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불교 근대화의 현실 인식'에서는 근대기 최초의 포교당인 각황사의 설립과 운영, 일제하의 역경, 일제하의 불교출판, 근대불교의 청소년 포교와 조선불교의 포교 등을 다뤘다.

제2장 '불교 근대화의 다면성'에서는 건봉사 재일 불교유학생과 명봉학교, 석전과 한암의 문제의식, 경봉의 자생적인 불교 근대화의 전범, 만암의 사상, 청담의 불교 근대화와 교육문제, 화엄사 승가대학의 어제와 오늘 등을 다뤘다.

제3장 '불교 근대화와 불교 개혁론'에서는 근현대 불교 개혁론, 일본불교에 영향을 받은 근대불교의 다면성, 한용운의 불교개혁사상과 동아시아, 불교 근대화의 노선과 용성의 대각교, 해방공간의 불교, 태허의 불교혁신론, 광덕사상,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구도부와 봉은사 대학생수련원, 여성불교운동의 발자취, 신도회 역사에 비추어 본 신도회의 지향 등을 다뤘다. 이와 같이 책은 한국 불교의 근현대사에서 읽어야 할 것들을 읽어준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1955년 8월 3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니대회.

'근현대'는 조선후기 · 현대 가교

근현대불교사 개념화 작업 미진

'새로운 시대에 처해진 불교' 인식이

불교 근대성 연구의 첫 걸음

이상과 현실의 간극 연구 정리

진보 관점 '근대화 연구'와 차별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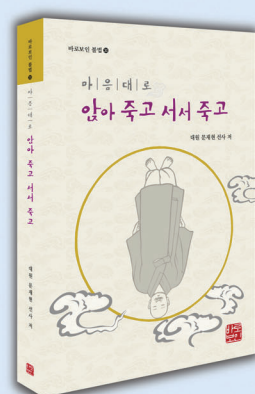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66권의 저서 출간!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 죽고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놓았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종량)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 선도하는 전문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 상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문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문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문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사전에 운전만을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주차브레이크 장치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후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체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반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중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6(검단동 837-160번지) www.kw-tec.co.kr